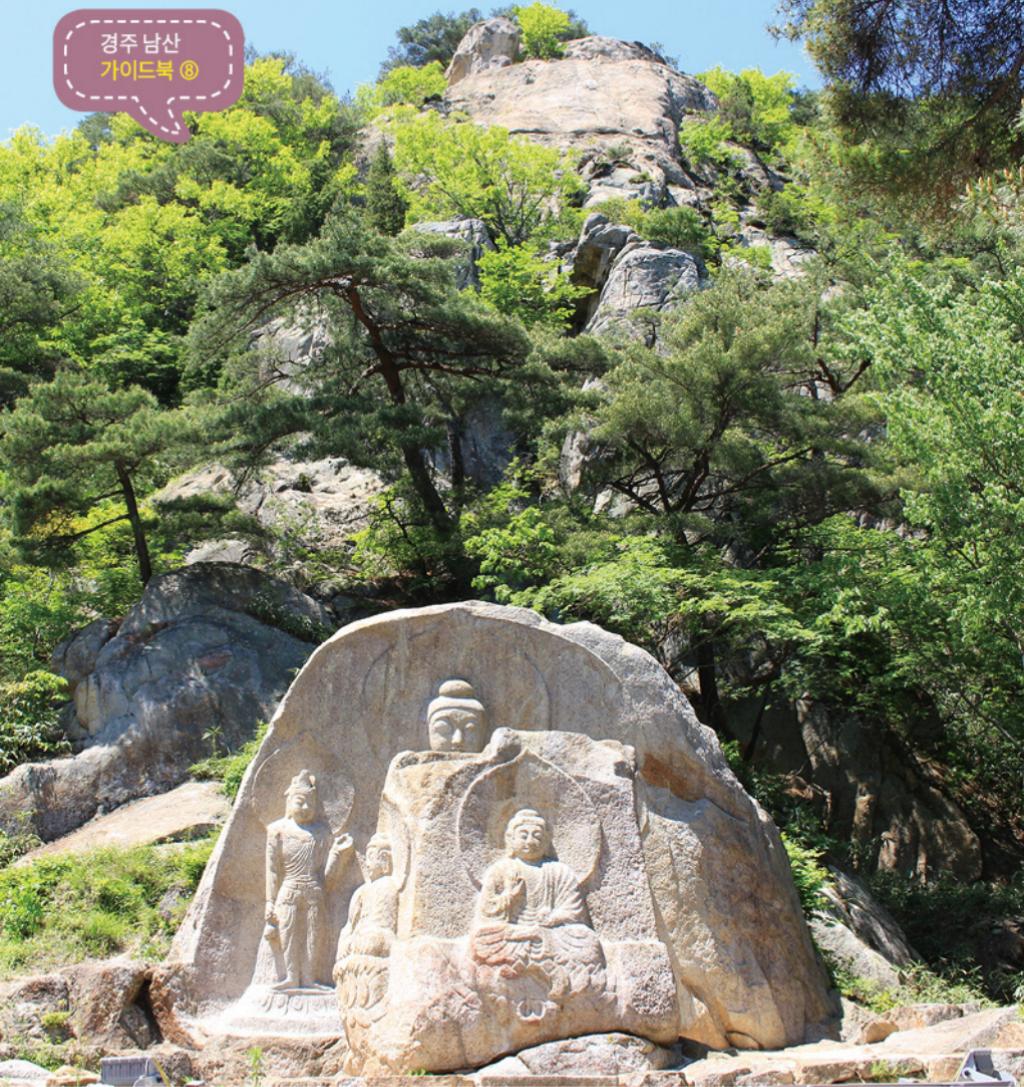


경주남산
가이드북 ®



경주남산

동남산코스



慶州南山研究所

● CONTENTS

동남산코스	3
동남산코스 약도	4
①불곡마애여래좌상	6
②옥룡암과 탑곡마애불상군	7
③보리사 마애석불	8
④미륵곡 석조여래좌상	9
⑤경상북도 산림환경연구원	10
⑥화랑교육원과 석조감실	10
⑦한강왕릉	11
⑧정강왕릉	11
⑨통일전	12
⑩서출지	12
⑪국사곡 제4사지 삼층석탑	14
⑫골바위 절터	15
⑬국사곡 제7사지	15
⑭금오정	16
⑮상사바위	16
⑯사자봉	17
⑰남산부석	17
⑱오산곡 마애여래상	18
⑲지암곡 제2사지 삼층석탑	18
⑳지암곡 제3사지 삼층석탑	19
㉑남산동 동서삼층석탑	20
㉒염불사지	21
㉓승소곡 절터	22
㉔천동곡 천동탑	22
㉕신선암 마애보살반가상	23
㉖칠불암 마애불상군	24
경주남산 유적답사 안내	26
경주남산 내비게이션 주소 목록	27



慶州南山研究所

The Research Institute of Mt. Namsan in Gyeongju, Korea (THE RING)

사단법인 경주남산연구소는

많은 사람들이 경주 남산의 아름다움과 곳곳에
깃들어 있는 가치를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
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주 남산의 문학유적을
널리 알리고, 유적을 보전하고 연구하며, 아울러
남산의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펴낸이 (사)경주남산연구소

www.kjnamsan.org

E-mail: kjnamsan@hanmail.net

경북 경주시 태종로 71번길 15(노서동)

Tel. 054-777-7142

Fax 054-776-7142

펴낸날 2019년 10월 1일

기획 및 디자인 디자인창 054. 745. 5521

*이 안내책자는 경상북도와 경주시의 후원으로 제작
되었습니다.*

금오봉과 고위봉에서 뻗어 내린 60여개의 능선과 골짜기들을 남산이라 하며, 서쪽면을
서남산이라 하고, 동쪽면을 동남산이라 부른다. 서남산은 거치른 바위가 많아 경사가 가파
르고 질 좋은 바위가 많아 드러난 마애불과 절터가 많지만, 동남산은 소나무 우거진 깊은
골짜기 속 곳곳에 절터와 탑·불상이 숨어 있다. 북쪽 기슭의 불곡감실여래좌상을 비롯하여,
탑곡 마애불상군, 미륵곡 석조여래좌상과 마애불이 있고, 국사곡·지암곡에 이르러서는 기기
묘묘한 바위들과 탑들이 골골이 숨어 만물상을 이루고 있으며, 오산곡, 승소곡, 천동곡 깊은
골에는 절터가 허다하고, 봉화곡 칠불암과 신선암에 이르러서는 기암절벽을 배경으로 하여
부처님의 선경을 이루어 놓았다.

이곳이 바로 원효대사께서 『발심수행장(發心修行章)』에서 일컬은

高嶽峩巖은 智人所居요 碧松深谷은 行者所棲니라
助響巖穴로 為念佛堂하고 哀鳴鴨鳥로 為歡心友니라
높은 산 솟은 바위 밝은 이가 살 곳이요
푸른 솔숲 깊은 골은 닦는 이의 쳐소로세
울려주는 바위굴로 염불하는 도량 삼고
슬퍼 우는 새소리로 마음 속 벗 삼네. 가 아니겠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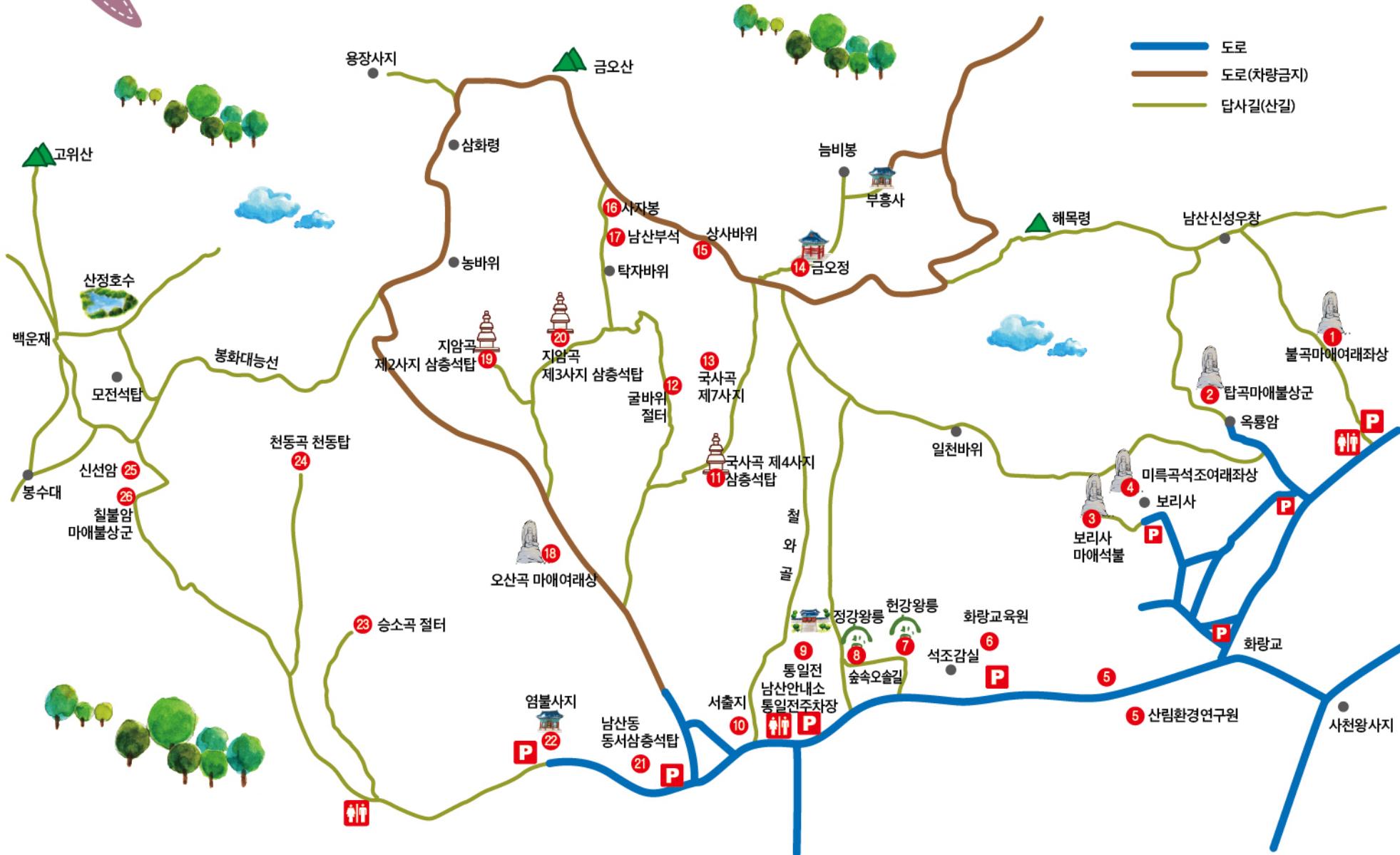
동남산의 모든 답사는 통일전 주차장에서 시작되며, 주요한 답사로는 다음과 같다.

1. 불곡, 탑곡, 미륵곡
2. 일천바위능선을 올라 금오정으로
3. 철와골에서 금오정으로
4. 국사곡의 절터를 지나 금오정으로
5. 지바위골의 탑을 찾아 사자봉으로
6. 순환도로를 따라 금오봉으로
7. 칠불암 가는 길

●통일전 주차장 찾아가기

- 승용 차 : 고속도로를 나와서 4번재 신호등에서 우회전(불국사 방향)하여 1.2km 지점에서,
통일전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2.4km 오시면 큰 주차장이 보입니다.
- 경주시 칠불암길 6
- 택시 : 시내에서 통일전주차장으로 가면 됨.(7~10분 정도)
요금 7,000~10,000원
- 시내버스 : 시내(고속버스터미널, 경주역 주변)에서 11번(통일전 경유 불국사행) 버스를
타고 통일전에서 하차.

쉽게 찾아가는 동남산코스



● 불곡마애여래좌상 ① (보물 198호)

바위 속에 숨은 부처, 숨은 듯이 나투시네

신라인들은 저 높고 눈부신 곳에 있는 부처님의 세계를 이 땅에 옮겨 짙박한 속세의 삶 속에서 구현하려고 하였다. 모든 이들이 부처의 씨앗을 갖고 있기에 자신을 갈고 닦으면 누구나 부처의 자리에 오를 수 있다는 진리를 깨닫고, 일상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삶을 살았다. 남산의 수많은 불상 어느 하나 쉽게 만들어 지지는 않았지만, 조그마한 감실 속에 딱딱한 화강암을 깨고, 망치를 함부로 쓸 수 없는 좁은 공간 속에서 우리에게 친근한 이미지의 부처님을 탄생시킨 것이다.

일상 속에 살며시 녹아있는 우리 곁에 계신 부처님 모습이다. 불법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었다. 백성들은 밥을 먹으면서도, 일을 하면서도 이 모든 것이 부처님의 자비로 베풀어진 것이라 생각하고 합장을 하며 감사하였다. 그들은 바위 속에서 부처를 만나고 바위가 내려 보는 곳에서 복된 삶을 누린 것이다.

신라인들은 바위에 부처를 새긴 것이 아니라, 바위 속의 부처를 찾아내었다. 좁은 굴 속에 있으면서도 답답해 보이지 않는 것은, 시골 할머니가 돌로 만든 집 속에서 편안히 쉬고 있는 듯한 모습이기 때문이다. 7세기 초에 조성된 신라에서 가장 오래된 석불상이다. 선덕여왕을 모델로 하였다고 하기도 한다.

찾아가기

통일전 방면 화랑교를 건너
자마자 우측 강둑길을 따라
900m 정도 가면 부처골 입
구가 있다. 불상까지 약 7분
소요. ♡경주시인왕동 180-3



● 옥룡암과 탑곡마애불상군 ② (보물 201호)

깨달음의 기쁨은 꽃이 되어 떨어지다



찾아가기

부처골 감실여래좌상 못미쳐
표지판이 있다. 입구에서 불
상까지는 약 7분 소요.

경주시 배반동 1132-69

옥룡암은 작고 아담한 절이다. 일제강점기부터 많은 저항지식인들이 머물다 가기도 하였고 (이육사도 1942년 7월부터 석달간 머물렀다), 해방 후에는 고시공부방으로도 이름을 떨쳤다. 봄이면 벚꽃이 흐드러지고, 가을이면 단풍이 유달리 아름다워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다. 절 뒤 높이 10여 m, 둘레 40여 m 바위 암벽에 사방으로 돌아가며 환상적인 부처님의 세계가 펼쳐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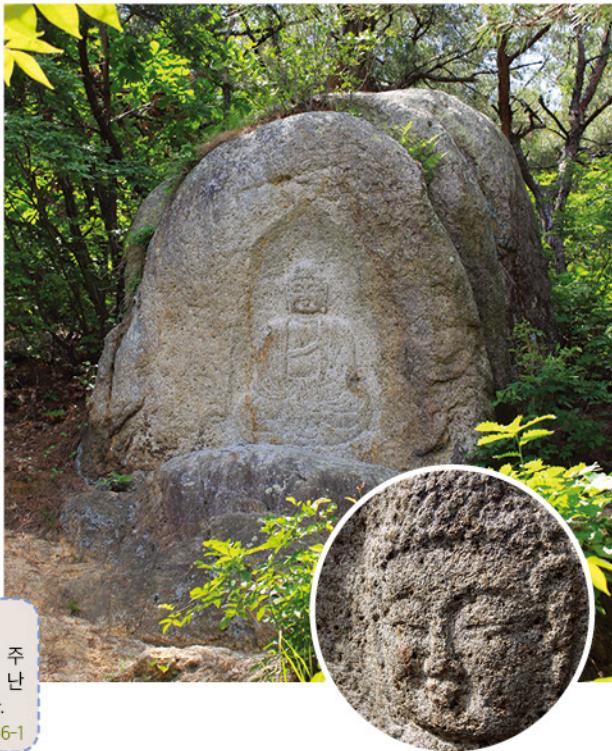
남쪽의 큰 암석에는 목조 건물이 있었던 흔적이 남아있다. 남쪽 바위 면에는 삼존불과 함께 독립된 불상이 반 입체상으로 서 있다. 삼존불은 화목한 가족을 연상케 한다. 좌협시 보살은 부처님에 응석을 부리는 듯하다. 마당 남쪽에는 삼층석탑 1기가 우뚝 서있다. 9세기 말에 조성된 탑이다.

동쪽 면에는 본존과 보살, 하늘에서 날아 내려오는 일곱 구의 비천상이 있다. 불보살상 좌측 아래에는 듯자리를 퍼고 공양 올리는 스님상이 있다.

북면에는 9층 목탑과 7층 목탑이 있고 그 가운데 연화대 위에서 설법하는 부처님이 계신다. 탑 위에는 비천이 너울너울 춤을 추며 날고 있다. 면적이 좁은 서면에는 부처님 한 분과 비천 두 구가 있다. 새겨진 부처님과 탑들은 사실적이라기보다는 회화적이다. 이 절터에서 신인사(神印寺)란 기와 명문이 출토되었다 하여 신인사로 알려지고 있다. 신인사는 신인종의 명량(明朗)스님이 당나라의 군사를 물어내기 위해 사천왕사에서 기도 중 부처님의 힘을 빌기 위해 이 바위에 만다라적인 부처의 세계를 조성하여 건립한 사찰로 추정되고 있다.

● 보리사 마애석불^③(지방유형문화재 193호)

서라벌을 굽어 살피시는 남산 부처님



찾아가기

마을 입구를 지나 보리사 주 차장에서 왼편 산속으로 난 길을 따라 약 5분 올라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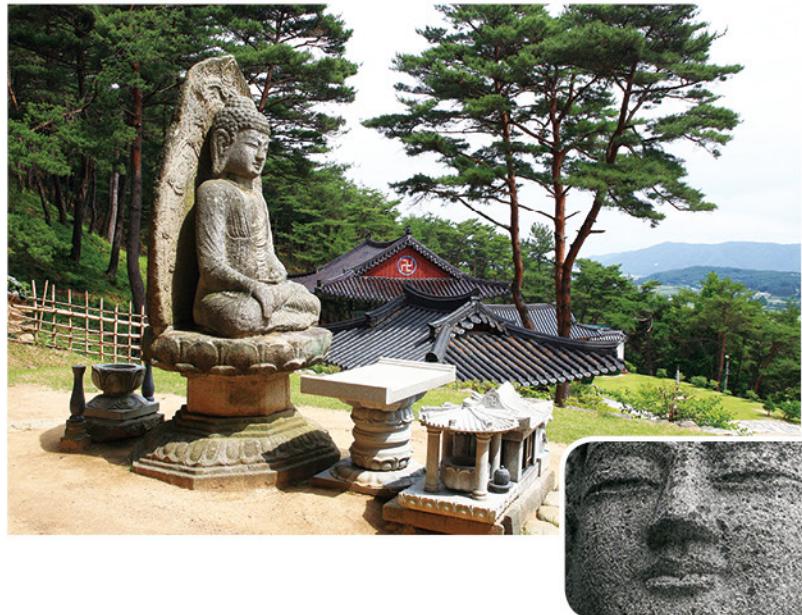
경주시 배반동 산 66-1

대나무 숲길을 지나 가파른 오르막을 150m 쯤 올라가면 마애불이 한 분 계신다. 힘든 길 오를 땐 짜증도 나지만, 부처님을 만나는 순간 마음이 환히 밝아진다. 생글생글 웃으며 반겨주신다.

경사가 급한 산허리에 높이와 너비 2.4m 정도 되는 바위에 마애여래좌상이 새겨져 있다. 전각을 세울 수도 없는 이 가파른 곳에 왜 불상을 조성하였을까? 연꽃 위에서 밝은 미소를 머금은 모습으로 넓은 서라벌 벌판을 굽어보고 계신다. 저 멀리 보문들과 낭산의 선덕여왕릉과 사천왕사가 한눈에 들어온다. 펼쳐진 광경이 너무나 풍요롭고 가슴이 활짝 열린다. 이곳에서 언제나 서라벌을 굽어 살피시며 이 땅의 백성을 보살펴 왔으리라. 앞을 향해 약간 굽어 있는 바위 벽면에 거신광의 감실을 파고 불상을 새겨 놓았다. 나발은 양증맛을 정도로 귀엽고, 얼굴은 밝은 미소를 띠고 있다. 신체는 부드럽고 무릎과 대좌는 다소 졸렬하다. 9세기 말에 조성된 불상이다.

● 미륵곡 석조여래좌상^④(보물 136호)

원만구족하신 부처님을 우러러 뵙다



보리사는 남산 일대에서 가장 큰 절이다. 옛 절터에 근세에 다시 세운 절이다. 이곳에서 내려다 보는 서라벌 경관이 장관이다.

이 절 왼쪽에 통일신라시대를 대표하는 불상이 있다. 모든 조건을 고루 갖춘 전형(典形) 불상이다.

대좌는 억센 복련 연꽃과 팔각의 중대석, 탐스런 양현으로 된 삼단대좌, 결가부좌로 항마촉지인(降魔觸地印)을 하고 긴 눈을 가늘게 내리 놓고 있다. 종교적인 신비감이 어린다. 이마엔 백호의 흔적이 남아 있고 입가엔 자비로운 미소를 머금고 계신다. 옷자락은 석굴암 불상보다는 다소 거칠지만 유려하게 훌려내린다.

거신광으로 된 광배는 화려하다. 화려하고 부드러운 화염문, 여섯 송이의 연꽃으로 장식된 두

찾아가기

화랑교 입구에서 오른쪽 길을 따라 걸어 들어온 후 마을을 지나 보리사로 올라오는 길을 따라 온다. 약 10분 소요.

경주시 배반동 산 66-1

줄기의 선으로 신광을 나타내었고, 또 다섯 송이 연꽃으로 두광을 장식하였다. 7구의 화불(化佛)은 구불거리며 솟아 오른 줄기 위에 편 연꽃에 앉아 계신다. 연화화생(蓮花化生)이다. 전체 높이 4.36m, 불상높이 2.44m다. 광배 뒷면에는 약사여래좌상이 새겨져 있다. 약그릇을 들고 계신다. 앞면의 여래상은 8세기 후반에 조성되었고, 뒷면의 약사여래상은 9세기 말에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 경상북도 산림환경연구원^⑤

우거진 숲과 야생화는 길손을 반긴다



보리사 입구에는 옛날 나룻배가 달던 곳이라 하여 갯마을이라 한다. 길은 경상북도 산림환경연구원을 가로 질러 이어져 있다. 각종나무들이 이름표를 달고 맞이하니 마음 또한 시원해진다.

산림환경연구원은 41ha의 넓은 터에 910종의 수목을 보유하여, 자연학습교육장을 만들어 놓았다. 산림전시실, 야생화 꽃밭, 무궁화동산, 습지 생태연못 등 시설을 갖추어 갈봄여름 없이 꽃피워 반겨주니 꼭 들러 보아야 할 곳이다.

📍경주시 남산동 725-2

○ 화랑교육원과 석조감실^⑥(문화재 자료 6호)

텅 빈 석조감실, 부처님은 어디에

화랑교육원은 화랑의 혼이 삼국통일의 기본 정신이었기에 후손들에게 화랑의 얼을 계승하고 투철한 국가관과 바른 품성의 인제양성을 위해 1973년 설립하였다.

곧은 기상의 소나무가 울울창창 하늘을 향해 치솟아 있고, 일천바위가 굽어보는 곳에서, 천하를 호령할 새로운 화랑이 심신을 수련하는 곳이다.

운동장과 건물사이 솔숲 속에 판자 같은 바위로 조립한 석굴 같은 감실이 있다. 별로 다른지 않은 장대석으로 지대석을 삼고, 그 위에 네모꼴 판석 4매를 결구하여 공간을 만들었다. 밭침돌 위로 양쪽 옆면과 뒷면을 높이 세운 뒤에 그 위로 덮개돌을 얹어 앞쪽을 트이게 했다. 감실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길쭉하고 동근 연화대좌이다. 이 연화대좌로 인하여 불상이 안치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경주시 남산동 830-5



○ 헌강왕릉 ⑦ 정강왕릉 ⑧(사적 187호·사적 186호)

구불구불 솔숲과 진달래가 황홀하게 어우러지는 숲길

헌강왕(憲康王, 875~886) 시대는 신리말의 태평성세였다. 서울에서 지방에 이르기까지 집들은 연이어져 있고, 초가는 없었다. 숲으로 밥을 짓고, 풍악과 노래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비와 바람도 사절 순조로웠다. 일본왕이 사신을 보내 조방하기도 하였다. 동해옹왕의 아들 처용이 왔고, 남산신이 내려와 춤을 추기도 하였다. 왕릉은 흙으로 쌓아올린 원형봉토분으로서 밀둘레에는 장대석을 4단으로 쌓아 보호석으로 삼았다.

정강왕(定康王, 886~887)은 헌강왕의 동생으로 재위 2년(887) 봄 정월에 황룡사에서 백고좌회를 열고 강설(講說)을 들었으며, 이찬 김요의 반란을 진압하였다. 재위 2년에 후사(後嗣) 없이 병환으로 돌아가시니 여동생 진성여왕(眞聖女王)이 왕위에 올랐다. 왕릉은 헌강왕릉과 비슷하지만 밀둘레 호석이 3단이다.

두 왕릉 모두 도로에서 100여 m 거리로서, 구불구불한 소나무 숲길은 남산의 또 다른 경관이다. 특히 봄이면 진달래와 개나리가 소나무와 어우러진 모습은 빼어난 풍경이다.

헌강왕릉에서 정강왕릉까지는 도로로 나가지 말고 숲 숲길을 걸어보자.

○ 찾아가기

화랑교육원과 통일전 사이의
도로에서 약 100여 m 올라
간다. 주차는 통일전 주차장
을 이용한다.





○ 통일전^⑨

남북통일의 염원, 향 끝에 사르고

남산은 화랑들이 몸과 마음을 닦던 성지와도 같은 산이다. 신라는 660년 백제를 병합하고 668년 고구려를 멸하고, 676년 이 땅에 주둔하던 당나라 군사를 완전히 몰아냄으로써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단일민족국가를 형성하고 삼국문화를 융합하여 통일신라문화의 황금시대를 열었다.

통일전은 1977년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로 삼국통일의 역사적 성업을 완수한 태종무열왕, 문무왕, 김유신장군의 업적을 길이 찬양하고 화랑의 호국정신을 오늘에 이어받아 발전하는 조국의 정신적 지주로 삼고자 조성되었다.

세 통일 영웅의 영정이 봉안되어 있고, 회랑에는 삼국통일의 기록화가 전시되어 있다. 또 삼국통일기념비와 태종무열왕, 문무왕, 김유신 장군의 사적비가 있다. 무엇보다도 남산의 동쪽 벌판이 시원하게 내려다보여 좋다.

📍 경주시 칠불암길 6

○ 서출지^⑩(사적 138호)

천년 전설이 살아나는 아름다운 연못

통일전주차장 남쪽에 조그마한 연못이 있다. 연못가에서 배롱나무 꽃이 만발할 때 남산과 함께 바라보는 이요당(二樂堂)의 경치는 한 폭의 수채화다. 연못에는 연꽃이 가득 핀다.

이 연못에는 삼국유사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 온다. 신라 21대 비처왕(소지왕)이 즉위한 지 10년 되던 해(488) 정월에 왕궁을 명활성에서 월성으로 옮겼다. 정월 보름 신하들을 거느리고 천천정(天泉亭)에 행차할 때 까마귀와 쥐가 와서 울었다. 쥐가 사람의 말로 이르기를, “이 까마귀 가는 곳을 찾아 가 보시오.” 하였다. 왕은 기사(騎士)에게 명하여 까마귀를 따라

가게 하였다. 남산 동쪽 피촌(양피사촌)에 이르러, 돼지 두 마리가 싸우고 있는 것을 구경하다가, 문득 까마귀가 날아간 곳을 잊어버렸다. 이 때 한 늙은이가 못 속에서 나와 글을 올리니, 걸봉에 쓰기를 「떼어보면 두 사람이 죽을 것이고, 떼어보지 않으면 한 사람이 죽을 것이다.」하였다. 왕이 말하기를, “두 사람이 죽는 것보다는 떼어보지 않고 한 사람이 죽는 것이 낫겠다.” 하니, 일관(日官)이 아뢰기를, “두 사람은 서민이요, 한 사람은 왕입니다.” 왕이 그렇다고 여겨 봉투를 열어보니, 그 속에 「거문고갑을 쏘라」고 쓰여 있었다. 왕이 궁중으로 돌아와 거문고갑을 쏘니, 내전의 분수승(焚修僧)과 궁주(宮主)가 몰래 간통(奸通)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처형하였다. 이로부터 나라 풍속에 해마다 정월의 상해(上亥), 상자(上子), 상오일(上午日)에는 모든 일을 조심하고 꺼려 함부로 움직이지 않으며, 정월 15일을 오기일(烏忌日)이라 하여 칠밥을 지어 제사 지내니, 지금까지도 이를 행하고 있다. 이후 이 뜻을 서출지(書出池)라고 이름하였다.

이 이야기는 신라의 전통적인 토속 신앙과 불교의 갈등, 불교의 수용을 둘러싼 신라 왕실과 귀족 집단의 대립, 내지는 소지왕에 반대하는 왕실 내부 세력에 대한 제거를 상징한다고 해석 할 수 있다.

이 연못에 1664년 임적선생이 이요당을 짓고 연꽃과 배롱나무를 심어 자연을 즐기며, 선비의 고고한 심성을 수련했다.

봄에는 매화, 목련, 벚꽃, 개나리, 진달래 등이 어우러지고, 여름에는 백일홍과 연꽃이 만발하고, 가을에는 노란 은행나무잎과 단풍이 아름답다. 계절에 따라 변하는 아름다운 경치를 즐겨보자. 연못 주변에는 조명을 더하여 밤에도 아름답다.



○ 찾아가기

경주시내에서 11번 버스 탑승 후 통일전 앞에서 내리면 된다.
승용차는 통일전 주차장을 이용한다.

📍 경주시 칠불암길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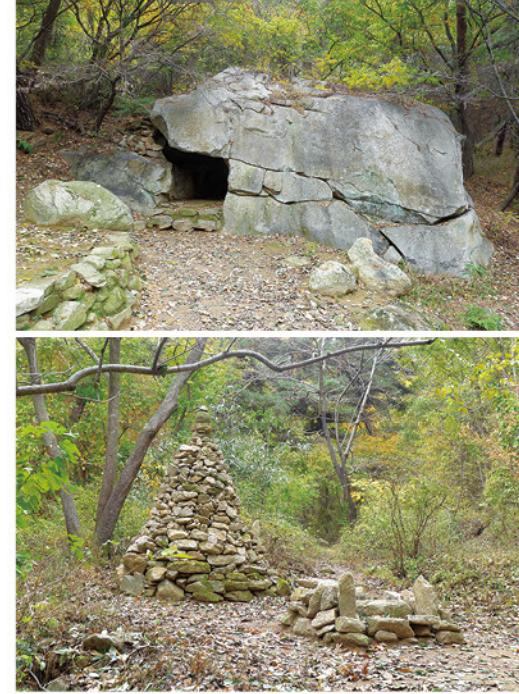
○ 국사곡 제4사지 삼층석탑^⑪(지방유형문화재 447호)

깊은 골 높은 능선에 솟아 있는 삼층석탑

국사곡 입구에서 계곡을 따라 약 600m 정도 들어가면, 이정표와 갈림길이 있다. 이곳에서 북쪽에서 흘러오는 개울을 따라 300m 정도 올라가면 계곡에 거대한 2층 축대가 있고, 축대를 지나면 오른쪽 언덕위에 커다란 축대위에 삼층석탑이 솟아 있다. 지금은 거대한 축대를 쌓아 탑의 지반을 받치고 있지만, 주변의 바위들을 보아 본래는 얼기설기 쌓여진 돌무더기 위에 솟아 있는 탑이었을 것이다. 이 탑은 복원 전 북쪽으로 질서정연하게 도과되어 있어 인위적으로 파괴되어 있었다. 기단 일부와, 1층 탑신 괴임, 노반만 새로운 돌을 보충하여 2002년 복원하였다. 삼층 탑신 상면에 한 번 14.5cm, 깊이 7.5cm의 방형사리공이 확인 되었다. 이 탑은 단층기단인데, 기단의 텁주(撐柱)가 사면 모두 별 석으로 조성된 점과 탑 주변으로 2겹의 부석(敷石)을 깔 것이 특이하다. 석탑은 단층기단이고, 옥개석 층급받침이 4단인 점 등을 보아 9세기 초에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탑 주변에는 흘어져 있던 석재들을 정리해 두었는데, 2종의 연화대석으로 보아 2구 이상의 석조불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곳의 절터는 탑 아래와 탑의 오른쪽 개울 건너에 넓은 터가 3단으로 펼쳐져 있고, 긴 축대도 남아 있다.

○ 굴바위 절터^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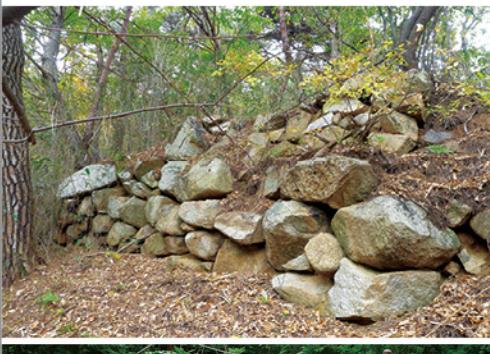
국사곡 입구에서 계곡을 따라 1.5km정도 올라가면 오솔길 좌우로 축대가 펼쳐져 보이고, 아담한 시골집 마당 같은 터가 나타난다. 이곳이 국사곡 제5사지 굴바위 절터이다. 이곳의 굴바위는 최근까지 무속인이 기도하던 곳으로 사용되었다. 아마 신라시대에는 수행자가 굴 입구를 막고 무문관(無門關)으로 삼아 수행 정진하던 곳이었으리라. 마당에는 무속인이 쌓은 돌탑과 제단이 있고, 그 곳에서 산 정상을 올려 보면 남산부석이 까마득히 솟아 하늘에 걸려 있는 듯이 보인다. 이곳에서 산 길을 따라 100m 정도 올라가면 개울가 큰 바위아래에도 무속인이 정성들여 기도하던 곳이 있다.



○ 국사곡 제7사지^⑬

굴바위 절터에서 굴바위의 오른쪽을 끼고 능선으로 올라가면 상사바위로 오르게 된다. 능선에 올라서서 150m 정도 올라가면 오른쪽 계곡 넘어 능선에 국사곡 7사지가 있다. 축대는 높이 2.5m, 길이 17m가 남아 있으며, 축대 위에는 마당의 빗물을 모아 내는 배수석 1매가 남아 있다. 절터에는 주춧돌 1매, 석탑 기단면석 1매, 1층 탑신석, 옥개석 1매가 남아있으며, 옥개석 층급받침이 4단인 것으로 보아 9세기에 조성된 탑으로 보인다.

절터는 동서 10m, 남북 12m 정도 되며, 왼쪽 능선에는 고깔바위, 오른쪽 능선에는 상사바위와 남산부석이 있고, 뒤로는 절벽이 둘러싸고, 앞으로는 조양들이 펼쳐져 보이는 전망 좋은 곳이다.



● 금오정(金鰲亭)^⑯

남산관광일주도로가 준공된 이후 경주시에서 세운 정자이다. 이곳에서 바라보면 동으로는 토함산 불국사와 조양들, 북으로는 남산의 북쪽 능선, 봉우리들과 신라 천년의 궁성인 월성과 도성, 서로는 단석산과 내남의 가암들이 펼쳐져 보인다.



● 상사바위^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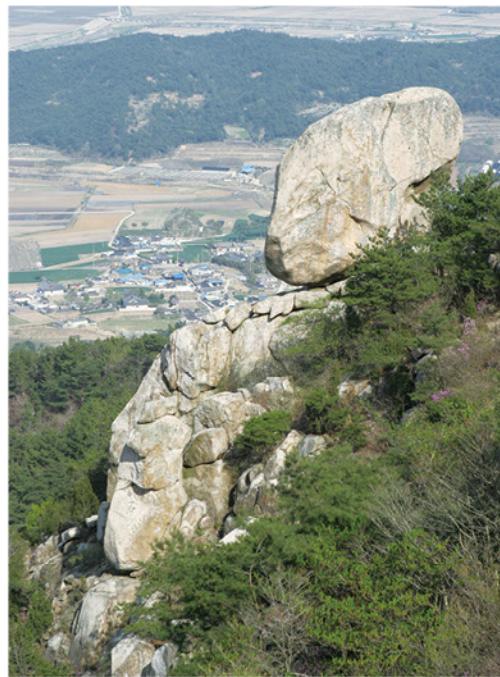
도로 옆 국사골의 능선에 있는 바위로서, 높이 10여m 되는 거암인데, 가파른 산위에 있어 더욱 높게 보인다. 바위는 두 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멀리서 보면 할아버지와 소녀 같은 모습이다. 그래서 이 바위에는 할아버지와 소녀의 이루지 못한 사랑이 죽어서 변하지 않는 바위로 사랑을 이루고 있다는 애틋한 전설이 전해져 온다.



● 사자봉^⑯

남산에서 가장 위엄 있는 봉우리이다. 사자봉(獅子峯)이라는 명문이 있으나 시대를 알 수 없다. 도로 준공시 국토건설단에 의해 팔각정이 세워 졌으나, 얼마 되지 않아 벼락 맞아 무너졌다.

이곳에서 바라보는 서라벌의 경관이 가장 아름답다. 도로는 경주남산을 관광화하기 위하여 국토건설단을 동원하여 1966년 11월 25일 완공하였다. 준공시 공식명칭은 <남산관광일주도로>이다.



● 남산부석^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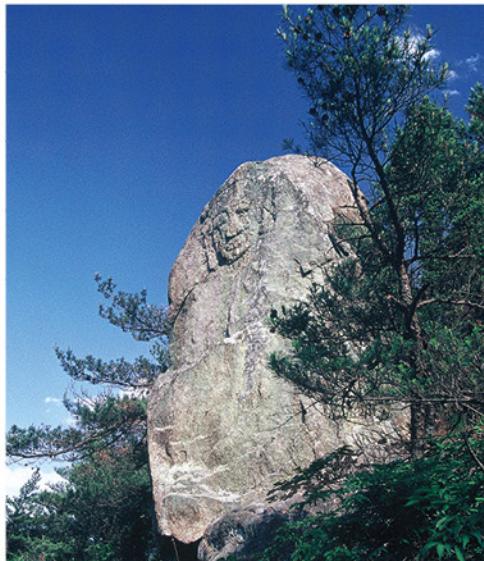
큰 바위 위에 부처님 머리 같은 큰 바위가 얹혀 있어 마치 대좌불(大坐佛) 처럼 보인다. 부처님 머리가 허공에 떠 있는 것 같아 부석(浮石)이라 부른다. 이 부근의 바위들은 불상처럼 생긴 모양이 많다. 여래상·보살상·나한상·좌상·입상 등 갖가지 모습의 부처님들로 산봉우리가 가득 차 있으니, 아래서 쳐다보면 하늘 세계의 부처님 궁전 같고, 올라가면서 바라보면 부처님 세계로 올라가는 것 같고, 올라가서 앉아보면 스스로 부처가 되어 부처님 나라에 있는 듯하니, 이 산을 부처님들이 머무는 산으로 신앙한 신라 사람이 된 듯하다.

○ 오산곡 마애여래상^⑯

길손을 굽어 살피시는 소박한 부처님 …

남산동 마을에서 국립공원 초소까지의 도로 오르막 오른쪽 숲속에 들판처럼 숨어 있는 바위들은 모두 고인돌이다. 40여 년 전에는 부근에 30여기가 있었으나 지금은 5~6기 정도만 남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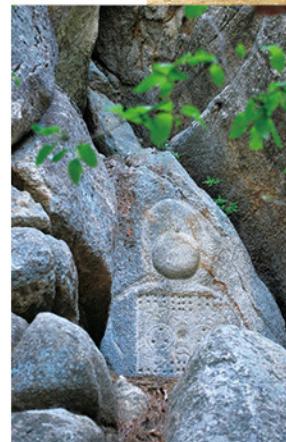
국립공원 초소에서 350m 정도 올라가면 왼쪽 개울 건너 산중턱에 높이 5m, 너비 2.5m 정도 되는 바위가 하나 솟아 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보름달처럼 둑근 불상 얼굴이 보인다. 얼굴은 둥글고, 코는 크고 납작하며, 눈은 두툼하고, 입은 두텁고 서투른 솜씨이지만 친근감이 가는 불상이다. 얼굴만 남아 있기 때문에 어떤 불상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 모습이 토속적이고 소박하며 친근감이 가는 불상이다. 이 불상이 있는 자리에는 경사가 가파르고 절터는 없다. 옛날 서라벌에서 언양 방면으로 넘어가는 고개 길목을 보살펴주시는 부처님으로 신앙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길에서 오른쪽 능선 넘어 골짜기에 개선사지가 있어 그 곳에서 바라보면 이 불상이 건너다보이므로 개선사 불상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 지암곡 제2사지 삼층석탑^⑯(문화재 자료 600호)

깊은 골 절터에 탑만이 남아 …

지암곡 입구에서 300m 정도 들어가면 길 아래 달팽이 논의 흔적이 보이고 길은 갈라진다. 이정표에서 왼쪽 길을 따라 개울을 건너면 농바위 골이 된다. 골짜기 정상부에 농[衣籠]처럼 생긴 바위가 있다. 개울 옆길을 150m 정도 올라가면 개울 건너에 길이 13m, 높이 4m 정도 되는 축대가 있다. 사방이 산으로 막혀 좋은 전망은 없으나, 명상하기에 좋은 아늑한 곳이다. 절터에서 70m정도 골짜기 안쪽 언덕위에 삼층석탑이 있다. 탑은 단층기단에 3층이며 옥개석 층급받침은 4단이다. 옥개석은 3매가 모두 남아 있었지만, 탑신석과 노반은 모두 없어졌던 것을 탑의 비례에 맞추어 새로운 돌을 보충하여 2003년 복원하였다. 이 탑은 기단부 각 면의 면석(面石)과 탱주(擣柱)·우주(隅柱)의 조합된 조각 형식이 달라 면마다 다른 모양을 보이고 있는 것이 특이하다. 9세기에 조성되었다.



○ 지암곡 제3사지 삼층석탑[㉐]

(지방유형문화재 449호)

2사지와의 갈림길의 이정표에서 100m 정도 본 계곡으로 올라가면 계곡에서 솟아있는 거대한 바위가 있다. 이 바위가 작은 지바위이며, 건너편 능선에는 거대한 축대가 2단으로 보인다. 이 일대가 지암곡 1사지이다. 이 곳에는 조선시대 기와편들만 보이고 유물은 없다.

이곳에서 계속해서 300m 정도 가파른 산길을 올라가면 민묘 위넓은 터에 삼층석탑이 보인다. 이 탑은 탑신과 옥개석이 모두 주변에 남아 있어 노반만 보충하여 2003년 복원하였다. 자연괴석을 기단으로 삼아 그 위에 2단의 탑신괴임을 놓고 삼층탑을 올렸다. 옥개석의 층급받침은 4단이며, 상승감이 크다.

탑에서 향 우측 숲속으로 들어가면 거대한 바위가 앞을 가로 막는다. 이 바위가 큰 지바위이며, 바위 앞면의 대밭 속 경사지가 신라시대의 절터이다. 앞을 바라보면 작봉(鶴峰) 너머 조양들이 펼쳐지고 멀리 토함산 준봉이 조산(祖山)으로 솟아 있는 명당이다. 큰 지바위의 높은 중간부분 바위 사이 동굴에는 무속적인 마애 조각이 있으나 올라가기가 쉽지 않다. 또한 근대에 조각된 것으로 추정되는 무속적인 상 1구와 솜씨가 다소 떨어지는 불상 1구가 남아 있다.

○ 남산동 동서삼층석탑^㉑(보물 124호)

서로 다른 두 기의 탑, 아름답게 남아 있다.

『삼국유사』의 염불스님 이야기에 나오는 양피사지로 추정되는 곳에 동서로 삼층석탑 2기가 서 있다.

서탑은 이중기단으로 된 일반적인 양식으로 석가탑에 버금가는 조화와 균형미를 갖춘 아름다운 탑이다. 상층 기단에는 팔부중상을 조각했다. 팔부중은 원래 힌두의 신들이었지만 불교에 수용되어 불법을 수호하는 호법신이 되었다. 남면 오른쪽의 건달바상은 악기를 연주하고 춤을 추는 신인데 사자탈을 쓰고 있으며, 왼쪽 아수라 상은 얼굴이 셋이고 팔이 여덟개로 손마다 무리를 들고 있으며 위로 올려든 손에는 해와 달이 들려있고, 배 앞에 있는 손에는 해골이 들려 있다. 동면 왼쪽의 야차상은 귀신 나라의 왕으로 염주를 입에 물고 손으로 헤아리고 있다. 오른쪽은 용왕으로 머리에 용관을 썼고 손에는 여의주가 들려 있다. 북면에는 얼굴 좌우에 소머리와 말머리가 달려있는 긴나라와, 뱀의 신 마후라가가 새겨져 있고, 서면에는 금강저를 들고 있는 천(天)과 주동이가 독수리 부리의 새의 신 가루다가 새겨져 있어 보는 재미를 더한다.

동탑은 광대한 이중의 지대석 위에 세운 전탑의 양식을 띠고 있는 모전석탑이다. 동탑은 꿋꿋하고 힘차게 솟아있어 남성답고 서탑은 부드럽고 화려하여 여성스럽다.

이 탑은 불국사의 석가탑·다보탑처럼 형식을 달리하는 쌍탑으로 알려져 왔으나, 양 쪽 탑 지면의 높이가 다르고, 동서 축이 달라서 별도의 탑으로 확인되었다.

○ 찾아가기

서출지를 지나 남산동 안쪽으로 조금 더 들어간다. 석탑 부근 주차할 장소가 있다. 서출지에서 도보로는 5분소요.

경주시 남산동 226-2



○ 염불사지^㉒

염불스님의 염불소리가 실바람을 타고 낭낭하게 들려오는 듯하다.

양피사지에서 다시 남으로 700여 m 가면 절터에 탑 2기가 있다. 1기는 불국사 역전에 있었고, 1기는 밭 가운데 무너져 있던 것을 2009년 본래 자리에 복원했다.

탑은 이중 기단 위에 장중하게 세워졌으며 층간 체감율과 옥개석, 탑신 사이의 공간이 넓어 시원한 느낌을 주고 있다. 상하층 기단 모두 탱주(樻柱)가 2개씩 새겨져 있어 석가탑과 같은 시대인 8세기 중엽의 탑이다. 탑은 본래 자연스런 바위 무더기 위에 세워져 있었으나, 복원하면서 깎은 돌로 반듯하게 축대를 쌓아올려 흉물스럽게 되어버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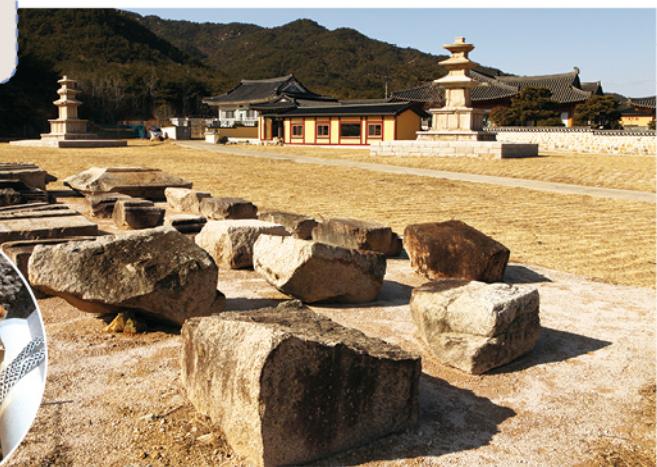
『삼국유사』에 의하면 “남산 동쪽 기슭에 피리촌이 있고, 동네에는 피리사라는 절이 있었다. 절의 스님은 늘 아미타불을 염하는데 그 소리가 성안에까지 들려 360방 17만호에 들리지 않은 곳이 없었다. 높고 낮음이 없는 소리는 한결같이 낭랑하여 모두가 그를 공경하여 염불스님이라 불렀다. 그가 죽자 소상(塑像)을 만들어 민장사에 모시고 그가 본래 살던 피리사(斐里寺)를 염불사(鹽佛寺)로 고쳐 불렀다. 이 절 옆에 또 절이 있는데 마을 이름을 따서 양피사(楊皮寺)라 했다.” 한다.

이 탑은 복원할 때 스리랑카 종교부장관과 국회의원스님이 친히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시고 와서 봉안하였다. 새로운 전설이 시작되고 있다. 염불스님의 염불소리가 실바람을 타고 낭랑하게 들려오는 듯하다.

○ 찾아가기

양피사지에서 남산동 안쪽으로 조금 더 들어간다. 주차장이 있다. 양피사지에서 도보로는 약 10분 소요.

경주시 칠불암길 1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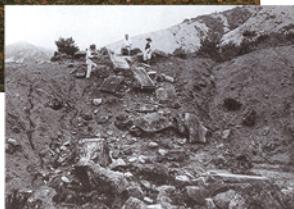




○ 승소곡 절터⁽²³⁾

칠불암 오르는 길 간이 화장실 부근에서 오른쪽으로 500m 정도 들어가면 계곡 막바지에 절터가 있다. 큰 바위산을 배경으로 하고 뻗어 내린 산맥들이 겹겹으로 터를 감싸고 둘러막은 아득한 곳이다. 건물터는 남북으로 두 곳에 넓게 펼쳐져 있다.

이 절터에서 삼층석탑 1기가 무너져 있었는데, 1941년 경주박물관으로 옮겨 복원하였다. 하층기단과 상층기단에는 각 면마다 안상을 2개씩 새기고, 1층 탑신에는 면마다 안상을 새겨 그 안에 사천왕상을 조각하였다. 9세기에 조성된 높이 361cm의 아담한 탑이다.



○ 천동곡 천동탑⁽²⁴⁾

칠불암 입구 화장실에서 개울을 2개 건너고, 오르막을 오르다 2번째 민묘에서 오른쪽 숲 속으로 500m 정도 올라가면 절터가 있다.

천동골에는 폐탑재 1개소, 디딜방아터 1개소, 천동탑 2기, 선방터 1개소, 금당지가 남아있다. 금당지의 축대는 일부가 무너졌는데, 천동탑은 금당지 정면에 1기가 세워져 있고, 계곡 쪽의 무너진 축대에 1기가 뒹굴고 있다.

천동탑은 자연석에 가까운 돌기둥에 각각 작은 감실을 100여 개씩 파놓은 특이한 모양이다. 계곡 이름이 천동골로 불리는 것은 이 돌기둥이 중국 석굴의 천불동을 본뜬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 신선암 마애보살반가상⁽²⁵⁾ (보물 199호)

남산에 나투신 도솔천의 미륵보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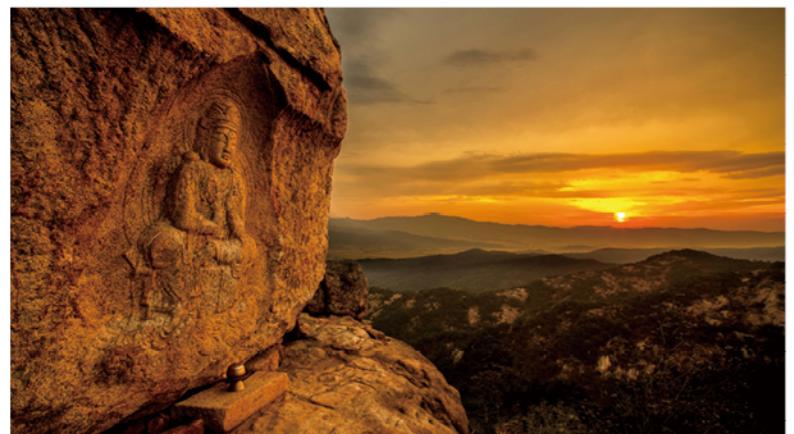
신선암은 칠불암 삼존불의 배경이 되는 바위의 높은 벼랑 위에 있다. 칠불암 마애불상군의 옆으로 난 길을 따라 바위 절벽을 오르면 기묘한 바위들이 절경을 이루어 마치 하늘로 향하는 사다리를 올라가는 것 같다.

힘들게 올라 마침내 넓은 바위산 중턱에 닿으면 수십 길 낭떠러지가 눈앞에 펼쳐진다. 이곳을 돌아가면 신선암 마애보살반가상이 새겨져 있다. 서라벌 벌판이 한눈에 펼쳐져 가슴이 확 트이는가 싶더니, 뒤돌아서 보살상과 마주치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진다. 보살상의 모습 또한 신비롭다. 보리수 잎 모양의 감실을 파고 구름 위에 의자를 놓고 의자 위에 편안히 앉아 계신다. 오른손엔 꽃가지를 들고 왼손은 설법인(說法印)을 하고, 도솔천 하늘을 유유히 노니시는 모습이다. 표정 또한 미소를 머금은 듯 아닌 듯 초연한 모습이다.

잠시 앉아 보살상의 눈높이로 세상을 보면 나도 또한 도솔천의 보살이 된다. 이곳이 바로 서라벌 남산의 도솔천이다. 세상은 푸른 소나무 파도를 지나 서라벌의 넓은 바다에 맞닿아 있다. 멀리 산봉우리들이 농담(濃淡)을 달리하며 섬처럼 떠 있다. 어느덧 시끄럽던 마음도 가라앉고 이 순간만큼은 유유자적 보살상과 함께 도솔천 하늘을 노닐고 싶다. 이곳에 도솔천의 미륵보살을 새긴 옛 신라인들도 같은 마음이었을까?

수십 길 낭떠러지 위에 놓인 바위에 새겨진 이 보살상은 남산에 있는 불상들이 어떻게 자연과 어우러져 있는지 잘 보여 준다. 남산의 불상들은 조각가의 솜씨를 뽐내기 위하거나, 또는 무엇인가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던 것이었다. 신라의 석공들이 바위 속에서 부처의 모습을 찾아내었을 뿐 …

이 보살상은 일반적으로 관세음보살로 해석하고 있으나, 도솔천의 미륵보살로 보는 것이 주변 모습과 더 어울릴 것 같다. 신라불교미술의 전성기인 8세기 후반에 조성되었다.



○ 칠불암 마애불상군^㉖(국보 312호)

심산 궁곡 바위 절벽에 화엄세계를 구현하다.

남산의 마애불상 가운데 걸작 중의 걸작으로 꼽히는 칠불암 마애불상군과 신선암 마애보살반가상 까지는 1시간 정도 걸어 올라가야 한다. 칠불암 마애불상군은 동남산에서 깊은 골짜기로 꼽히는 봉화골에 있으며, 사방불과 삼존불 등 일곱 불보살상이 남아 있는 곳에 근세에 한 암자를 지었고 칠불암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이곳에서 발견되는 힘차면서도 화려한 기와무늬며 귀인들이 기도 드리고 중병을 고쳤다는 비석조각들로 보아 나라에서 경영하던 큰 절이 있었음을 알 수 있지만 신라 때 절 이름은 알 수 없다. 절은 경사가 가파른 험한 산등성이에 세워졌다. 절터에 올라서면 감탄이 절로 나온다. 거대한 바위 절벽의 불상군이 압도적으로 두 눈에 가득 찬다. 바위 절벽 중턱에 좁은 터를 만들기 위해 돌 축대를 이단으로 쌓았다. 그 위에 터를 조성하고 바위를 병풍처럼 깎아 석가삼존불을 높은 돈을새김으로 새기고, 그 앞에 단을 쌓아 바위에 사방불을 새겼다. 동면은 동방유리광세계 약사여래이고, 서면은 서방정토극락세계 아미타불이다. 남면과 북면은 정확히 알 수 없다. 남산에 화현한 화엄불국토이다.

높이 5m, 너비 8m로 병풍처럼 솟아 있는 절벽 바위 면에 거의 입체 상만큼이나 높은 돈을새김으로 새겨진 삼존불은 규모와 솜씨 모두 남산불상 중 으뜸이다. 석굴암 불상보다 이른 통일신라 불교미술 발전기의 불상 중 최고 걸작으로 꼽힌다. 남산에 있는 문화재 중 유일한 국보이기도 하다. 이 불상들은 신라불교미술의 발전기로 꼽히는 7세기 말에서 8세기 초에 조성된 것으로 그 시대 최고의 걸작이다.

지금까지 이 불상들은 중심주굴(中心柱窟; 중심에 불상을 새긴 기둥이 있는 석굴)의 형식으로 보아 왔으나, 앞의 사방불은 부근에 쌓여져 있는 석탑 옥개석과 함께 1층 사방불탑이었으나, 절이 폐사가 된 후 어느 땐가 마애삼존상 앞에 축대를 쌓고 이곳으로 옮겨온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 자세히 관찰하면 마애삼존상과 사방불의 조각에는 시대를 달리하는 양식적 특징이 보인다.

○ 찾아가기

염불사지 석탑 앞에서 칠불암으로 향하는 등산로가 잘 나 있다. 염불사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걸어 올라간다. 시간 소요. 칠불암에서 약 10여분 올라가면 신선암이 있다. 왕복 2시간40분 소요. (통일전에서는 3시간 20분)
(대형차량은 통일전 주차장 이용)
경주시 칠불암길 125



경주남산 유적 답사 안내



코스	연중 시행				3~11월 시행			
	삼릉골	남산탐방길	동남산	서남산	남남산	삼릉골단축	삼릉 가는 길	동남산산책
시간	09:30 ~13:30	09:30 ~16:00	09:30 ~16:00	09:30 ~16:00	09:30 ~16:00	13:30 ~16:30	09:30 ~13:30	09:30 ~13:30
1 토	●					●	●	
일	●	●						
2 토	●					●		●
일	●		●					
3 토	●					●	●	
일	●			●				
4 토	●					●		●
일	●							
5 토	●					●	●	
일	●							
공휴	●							
출발지	서남산 주차장	월정교 주차장	통일전 주차장	서남산 주차장	서남산 주차장	서남산 주차장	월정교 주차장	통일전 주차장

● [삼릉골단축], [삼릉가는길], [동남산산책]은 3월~11월까지 운영합니다.

● 여름방학 기간에는 주중에도 매일 운영합니다.

● 방학 중 월·수·금 : 남산탐방길(단축 코스)

● 방학 중 화·목 : 삼릉골 코스

● 남산달빛기행(별도안내)

● 모든 답사는 참가비 무료이며 전문 해설사가 동행하여 해설합니다.

● 모든 답사 프로그램은 답사 전날까지 신청하고 참여할 수 있으며, 현장 접수도 가능합니다.

● 참가신청은 (사)경주남산연구소 홈페이지(www.kjnamhsan.org)에서 하면 됩니다.

● 홈페이지에는 보다 세부적인 일정과 운영시간 등이 공지됩니다.

● 문의: 054-777-7142

● 제공 : 전문해설사 동행 해설, 남산지도, 기념엽서 등

● 준비물 : 간식, 생수, 수건, 등산차림, (하루코스)점심도시락 필수

● 참가비 : 없음

경주남산 내비게이션 주소 목록



지 역	목 적 지	주 소	주차비(1회)	비 고
동남산	불곡 입구	경주시 인왕동 180-3		
	탑곡 입구 주차장	경주시 배반동 1132-69		버스 가능
	탑곡 옥룡암	경주시 배반동 1114		
	보리사 입구	경주시 배반동 1132-60		버스 가능
	보리사	경주시 배반동 산 66-1		
	산림환경연구원	경주시 남산동 725-2		
	화랑교육원 주차장	경주시 남산동 830-5		버스 가능
	통일전 주차장	경주시 칠불암길 6	무료	버스 가능
	남산리 탑	경주시 남산동 226-2		
	염불사지	경주시 칠불암길 125		
북남산	사마소	경주시 교동 89-1		
	월정교 주차장	경주시 천원2길 11	유료(미정)	버스 가능
	상서장 주차장	경주시 인왕동 276-3	무료	버스 가능
서남산	오릉 주차장	경주시 탑동 231-1	대2,000, 소1,000	버스 가능
	김호장군고택	경주시 탑동 637-4		
	나정	경주시 탑동 700-1		
	양산재 주차장	경주시 탑동 692	무료	버스 가능
	일성왕릉	경주시 탑동 855-5		
	포석정 주차장	경주시 남산순환로 816	대4,000, 소2,000	버스 가능
	지마왕릉 주차장	경주시 배동 483-1		
	삼불사 주차장	경주시 포석로 692-25		
	서남산 주차장	경주시 포석로 647	대4,000, 소2,000	버스 가능
	악수골 입구	경주시 포석로 530		
남남산	황금알오리식당	경주시 포석로 508		버스 가능
	악천오리식당	경주시 포석로 482		버스 가능
	용장리 주차장	경주시 내남면 용장4길 10	대4,000, 소2,000	버스 가능
	틈수골	경주시 내남면 틈수리 730-2		
	용산서원	경주시 포석로 110-34		버스 가능
	열암곡 주차장	경주시 내남면 노곡리 299	무료	버스 가능



경주남산은
이 땅의 역사가 시작된 곳이고
우리 조상들의 신앙이 깃든 곳이며
탑상과 자연이 함께 어우러진 민족문화의 산실이다.



사단법인 경주남산연구소

慶州南山研究所以